

섬지역 우편물 배송 제멋대로 하는 '우정행정'

완도우체국, 집배원 폭염 사고 우려 우편물 마감시간 앞당겨 놓고 원상복구 안해 제때 우편물 발송 못한 민원인들 불만 잇따라

완도우체국이 섬 지역 우편물 배송시간을 제멋대로 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완도 주민들에 따르면 완도우체국이 각종 우편물을 취급 운송하면서 그 동안 우송 가능 시간대를 1시간 단축해 우편물이 제때 배달되지 못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신문의 경우 발행일 보다 하루 늦게 우송되는 등 우체국의 편의주의적 우정행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도우체국은 완도읍과 도서 읍면을 차

량으로 연계하고 정기 여객선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우송배달을 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체도(완도읍, 연륙교로 완도와 연결된 섬)와 동부권, 서부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우편배달을 하고 있다. 또 신속 정확한 빠른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올려받는 등 최대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우정행정을 펼쳐왔다.

완도우체국은 그 동안 우편물 여객 화물선 출발시간인 오전 9시 50분에 맞춰 도서 지역 우송 업무를 진행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무더위 속에 집배원들

의 열사병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우송업무 마감시간을 1시간 가량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여름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1개월 동안 운영키로 한 시간단축 운영 기간이 끝났음에도 시간대를 원상복구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편물 화물 차량의 출발 시간도 들쭉날쭉해 정확한 시간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문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서 1분만 늦어도 우체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채 다음 날 배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신문의 한 관계자는 "우편물을 조금 늦게 접수할 때에는 사정도 해보고 항의도 해보지만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 등 최고 고객에게도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우편료 징수에만 급급한 우정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완도우체국 관계자는 "썸머타임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여객화물선 출발시간이 9시 50분이었다"라며 "기존에는 여객선출에서 우편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실어 줘서 9시 30분에 우체국에서 출발 해도 충분히 실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객선출에서 우편화물차에 우선권을 주지 않아 9시 전에 출발해야 여객화물선에 우편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해 서울 봉은사서 열린 해남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해남군, 서울 봉은사서 겨울배추 특판행사

해남군이 18~19일 이틀간 서울 봉은사에서 해남겨울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농수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풍작과 소비둔화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행사기간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해남겨울배추 홍보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펼친다.

19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캠페인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봉은사 원명 주지스님, 운영일 국회의원, 군의원, 재경향우회원 등이 참석, 김치 담그기를 비롯한

음식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또 절임배추 현장주문과 함께 짬짜이 밴드로 해남겨울배추 1000포기(3.3t) 나눔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배추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판행사 기간 동안 해남군 직거래사업단 17개 업체가 참여, 엄선한 100여개 품목에 대한 직거래 행사를 갖는다.

해남에서 생산된 쌀, 고구마, 김, 배추, 세발나물, 오디 등 건강한 농수산물과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조청, 뽕잎차, 효소, 감말랭이 등 가공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총력

완도군이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 16일부터 24일간 개최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전남도와 공동 개최하는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하고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후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가 해양수산부 검토 의견서와 함께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7월 중 최종 결정된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수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 국제박람회의 개최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알리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해조류 산업은 전남도와 완도군에 국한된 산업이 아닌 국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을 강조하며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국비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 의했다.

또 2014년과 2017년 2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해조류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 해조류 산업 발전에 기여했음을 피력했다.

특히 2024년까지 김 수출을 10억 달러로 증가시키려는 해양수산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KATI(농식품 수출정보)의 해조류 수출 실적은 2014년에는 2억 743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 두 배에 가까운 5억2552만 달러를 수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미국 최대 친환경 식품 유통 체인 홀푸드(Whole foods)가 해조류 식품을 2019년 미국의 주요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가 알려지면서 슈퍼 푸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1년도에 개최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해조류 산업과 해양수산업을 융복합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 읍지역 7000가구 LPG배관망사업 올부터 추진

완도군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완도읍 LPG배관망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사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완도읍 LPG배관망사업은 완도읍 16개 마을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29억원이 투입된다.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가스보일러, 안전계량기 등을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

수준으로 공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LPG 저장 시설 용지를 선정하고 다양한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락된 마을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주민숙원사업 예산 23억 아꼐다

해남군은 올 본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23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설계반은 본예산 확정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078건(386억100만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시작해 지난해 25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 23억1600만원의 예산을 아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정도 빠른 운영으로 설계기간 단축에 따라 2월 중 발주의뢰를 완료하고 3월 초 착공, 영농기 이전 공사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14명의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3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 빗물 배수구와 마을안길,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 초기발주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설계단가를 표준화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교류와 신규 공무원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어린이급식소 방문지도 연중 실시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지도(사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100명 미만의 아동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위생·안전·영양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 방문 지도는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소규모 보육시설을 찾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급식소를 방문해 급식소 주방 기구 살균 소독 방법, 식재료의 올바른 구매 및 보관 방법 등과 아울러 표준화된 조리법 권장, 배식 시 위생 관리 방법 등 어린이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게 된다.

특히 진도군은 ▲영양 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영양 관리 자료 개발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영양 식단 개발 ▲위생·안전 관리 실태 파악 및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